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8호 [투게 제24521호] 주제 103(2014)년 4월 18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로씨야단체가 축전과 선물, 메달을 드리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민족에비역군관련합련명에서 축전과 선물, 메달을 드리오다. 로씨야민족에비역군관련합련명에서 축전과 선물, 메달을 드리오다. 로씨야민족에비역군관련합련명에서 축전과 선물, 메달을 드리오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4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 하였다. 중국 보도사는 김정일 동지께서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그이를 우러러 《만수대》의 환호를 울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는 전환의 계기로, 정치적사변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열의속에 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대의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인민의 총부담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었다. 중국의 홍콩 방송 위성 TV 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영국신문 《더 뉴 위커》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을 만나시고 고무격려해주시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게 삼가 올립니다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 아름다운 귀국의 수도 평양에 모여 제29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들은 잊을수 없는 날날로 이어진 이번 축전의 막을 내리면서 존경하는 각하께 우리 모두의 뜨거운 경모의 마음을 담아 이 편지를 드리게 되는것을 더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당신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전체 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백년 대를 이어 끝없이 흐르게 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역사가 또 한페이지 자랑스러운 기록을 남긴 이번 축전은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고 참다운 예술발전을 지향하는 세계 여러 나라 예술인사들의 친선과 연대성, 교류와 협조의 뉴대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자기의 승고한 리념과 훌륭한 전통, 커다란 우월성과 생활력을 다스릴 높이 파시하였습니디. 우리들은 축전의 나날 귀국인민들과 함께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탄생하신 태양절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였으며 진정으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자기 위업에 대한 필성의 신심과 락관을 넘쳐있는 조선인민의 밝은 모습을 보았습니디. 또한 존경하는 각하의 혁명한 평도됨에 최근년간 장성국가건설과 문화예술부면에서 비약적으로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비롯하여 젊음으로 약동하는 귀국의 역센 기상을 경탄속에 직접 목격하게 되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공동의 지향과 념원을 안고 축전에 참가한 우리들은 친근한 귀국인민들과 축전조직위원회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이번 축전이 훌륭하게 진행되고 체류일정을 보다 즐겁고 인상깊게 보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감을 가지고있습니디. 우리 전체 축전참가자들은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적극적 참여를 하시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시고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각하. 각하께서 계시어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와 김정일 각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세계를 이어 국제적인 대예술축전으로 끊임없이 발전하여 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의 무궁한 번영과 위창한 미래를 위하여,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일동
2014년 4월 17일 평양

온 누리를 진감하는 래양칭송의 메아리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폐막

【평양 4월 17일 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지난 11일에 성대하게 개막되었던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폐막되었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사상의 광휘로운 빛으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가 나아가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에 한평생을 바치시어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호모의 정을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참가자들은 위인칭송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성의있게 준비한 작품들에서 높은 예술적기량을 보여주어 나라들사이의 문화적협조강화와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폐막식이 17일 동명양극장에서 진행되었다. 폐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차원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축전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인 한철문회총 부상, 판계부본 일군들, 시내문화인들이 참가하였다. 외국예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들과 주요 외교대표들, 국제

진보적인류의 위대한 수령 여러 나라 신문 특집

태양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이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을 특집하였다. 몽골신문 《허얼머르》제 14호는 《인민의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어 시대와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자주시대가 열리었으며 총대 위에 혁명투쟁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변명되었다는 진리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주석께서는 인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신데 이어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시었다.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의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하시었다. 김일성 주석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불려불가담운동이 위대한 반제자주투쟁으로 장성 강대되었으며 세계적판도에서 지배와 예속을 폐장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벌어졌다. 주석은 여러 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적극 지지지원하신 진보적인류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도이쾰란신문 《로테 파네》 4월호는 《국가건설에 쌓으신 김일성 주석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대중중심의 국가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해주신 공고한 토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의 근본 담보이라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영국신문 《더 뉴 위커》 3월 28일부는 《평화보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한 의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였다. 태양절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1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2년에 즈음하여 평양국제신문들이 3월 29일 특집하였다. 신문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주체의 영원한 태양》, 《선군조선》, 《위인의 미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블리츠》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진보적인류들로부터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칭송받으셨다. 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자주위업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마련해주셨다.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인류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그이의 영생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과의 심장속에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깊이 간직될것이다. 《앵글라 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 주석께서 개척하신 선군위업은 김정일 동지에게 의해 빛나게 계속되었다. 오늘 조선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동지 그대 로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한데 대하여 늘 강조하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셨다. 그이의 환하신 미소와 더불어 조선인민에게는 언제나 빛나는 승리만이 마련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농업전선에 비약의 불바람 세차게 인다

논갈이실적 지난해보다 1.5배, 500여만t의 흙보산비료 생산
뜻깊은 태양절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낸 기세 드높이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논갈이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배, 밭갈이실적은 1.3배로 늘어났으며 500여만t의 흙보산비료가 생산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오늘 농업부면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 도와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려는 대중의 드높은 열의가 당면한 불철영농전투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농업지도기반 일군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높이 세운 논밭갈이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황해북도와 평양시의 농촌에서는 논밭갈이의 앞장에 섰다. 송림시, 신계군, 상원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논밭갈이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

대흥단벌에서 밀, 보리씨뿌리기 한창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었다. 《농촌근로자들과 함께 밀, 보리씨뿌리기에서 지켜야 할 문제들과 밭갈이, 씨뿌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농장들에서는 씨뿌리기에 앞서 종자말리우기와 선별, 소독을 책임적으로 하고 밭갈이와 수평고루기를 선행시킨 다음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골고루 뿌려주었다. 련결농기계운전공들은 평양포기수를 정밀히 보강하고 수평고루기를 잘하기 위하여 직



농사일을 더 빨리 더 힘있게 추진하자

의 열정을 발휘하였다. 함경북도, 강원도, 평양시, 자강도의 농촌들에서 흙보산비료 생산을 끝냈으며 황해남도에서는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특히 함경북도의 농업근로자들이 흙보산비료생산에서 큰 역할을 하는 성과를 창조하였다.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는 흙보산비료생산기지들을 잘 보수하고 원료준비를 앞세웠으며 속성은도를 철저히 보장하였다. 발동추기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황해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강원도, 량강도, 남포시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실적을 올리었다. 이들은 농업전선에서 더욱 높은 열정을 높여 도적으로 논갈이에서 제일 앞서나갔다. 남포시, 평안남도들 비롯한 각지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농사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올 불바람을 일으키고 풀어나가면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었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열물동인에만도 3만 6천여명의 논갈이를 하였다. 연안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실정에 맞게 부림소로 인한 밭갈이를 다그쳐 도적으로

본사기자 활 언

온 누리에 울려 퍼지는 태양송가와 더불어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나리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며 조국도 있고 총련도 있다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에 참가한 제일조선예술단의 공연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총련동포들의 절절하면서도 진실된 그리움의 감정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과 민족을 떠나서 인간이 참된 삶이 있을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 있을수 없습디다.》

차천 칼바람이 세차게 불어치는 일본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조선예술단 예술인들이 찾아온 인생의 진리가 있다. 자본주의 나라 한반도에서 그 누구의 설명도 없게 아니라 자기자신의 인생체험으로 뼈저리게 새긴 그것은 절세위인들을 모시며 조국도 있고 총련도 있으며 개인의

재일조선인 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영명도 있었다는 진리였다. 해방후 수십년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품속에서 돈이나 황금을 주고 고수도 살수 없는 인간의 참된 삶과 존엄을 높여주시며 누리며 살아왔던가.

때없이 추억의 깊은 세계에 잠길 때면 절세위인들의 사랑속에 홀려온 나날들이 행복속에 떠오르고 그와 더불어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곳곳에서 그리워 평양의 하늘가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잠들수 없었다던 제일조선예술단 예술인들이다. 하하늘 어저 이들이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가 그토록 절절하지 않을수가 있오랴.

혼성5중창과 무용 《민족의 제일행운》으로 막을 올린 제일조선예술단 예술인들의 공연 무대에는 사연깊은 너성독창

이역땅에서 사는 총련동포들의 생활을 반영한 노래들을 선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감정을 승화시켜나아가다가 마침내 부끄러울 정도의 영광을 지녔던 40년전 그날처럼 김일성장군님만이 인민배우인 홍명필동포와 인민배우 류진현동포가 부르는 노래를 깊은 감동속에 들으며 관람자들은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해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어머니의 마음을 늘 곁에 있다시며 총련동포들을 뜨겁게 안아주시던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안고 어린 너성독창 《꽃잎을 사랑의 그늘》을 들으며 장군님의 헌애이 고결한 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눈물속에 추억하였다. 《애 사랑하는 나무》, 통일에 대

우리 마음 언제나 원수님들에

재종조선예술단에서는 이번 축전무대에 노래와 춤 《만경대의 노래》와 《백두산하늘아래 우리 삼니다》, 남성독창 《아 수령님품이며》와 《뿌리가 되자》, 무용 《발걸음》, 혼성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을 올리였다. 하나하나의 작품마다 지역특색에서도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랑스러운 애국을 가장 중요하게 의의가 직접 작가, 작곡하였다.

2년전에 열린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여운을 남긴 재종조선예술단 공연마감을 장식한 노래 《우리는 태양을 보았습디다》가 그 직접 작사하였다.

이런 축전의 첫날공연을 앞두고 우리와 만났던 김연수선생은 쓰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노래 《내 마음 언제나 그이 곁에》는 우리 예술단원들은 물론 재종동포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있습니다. 노래의 구절 구절을 새기려면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리 동포들을 일으켜

조선인 예술 단에서

새 힘을 주시고 영광의 자리마다 우리들을 부르시어 사랑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뵈고싶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곤 합니다. 정말이지 조국은 멀리 있어도 우리 모두의 마음은 언제나 그이의 곁에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이 노래를 부르게 된것이 정말 영광스럽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노래를 잘 부르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노래를 쳐주었고 저도 더불어 기쁘게 노래를 쳐주었다. 이 노래는 재종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직접 작사, 작곡하였다.

2년전에 열린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여운을 남긴 재종조선예술단 공연마감을 장식한 노래 《우리는 태양을 보았습디다》가 그 직접 작사하였다.

이런 축전의 첫날공연을 앞두고 우리와 만났던 김연수선생은 쓰거움에 젖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노래 《내 마음 언제나 그이 곁에》는 우리 예술단원들은 물론 재종동포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있습니다. 노래의 구절 구절을 새기려면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리 동포들을 일으켜

《마식령의 메아리》

국제 고려인통일연합회예술단에서

《마식령!-》

협한 부름소리가 메아리치는 가운데 무대배경에 마식령스키장의 장대한 절경이 펼쳐졌다. 노래 《변영하야라 로동당시대》와 《대조국강산에 넘치는 노래》의 선율이 흐르는 속에 스키주자를 신이 나게 지켜내려는듯 한 무용수들의 생각이 발랄하고 기백있는 춤을 보여 관중은 저도모르게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것만 같은 흥분이 휩쓸렸다.

국제 고려인통일연합회예술단이 출연하는 이 무용작품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정을 신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에서 마음껏 스키를 타며 시원한 회색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기발하면서도 생동한 춤동작으로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씩씩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민

《총성의 노래》를 부르게 된 사연

웰남국립가무극장예술단 예술인들

이런 축전무대에서 웰남국립가무극장예술단의 예술인들이 남성3중창으로 부른 전인민적송가 《총성의 노래》는 관람자들을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헌애는 그리움의 세계로 이끌었다.

예술단의 악장 공훈배우 도정영 안은 자기 단계의 예술인들이 조선으로 떠나오기 전에 하노이에서 있는 우리 나라의 외교관들을 통해 조선인민이 즐겨부르는 노래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연준비에 많은 힘을 쏟았다고 하였다.

특히 혁명의 간고한 길을 헤쳐오시며 배양되었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선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되

가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렇게 품어져 준비된 전인민적송가 가무극무대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웰남국립가무극장예술단의 예술인들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커다란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그래서 이들은 조선인민이 사랑하는 전인민적송가를 훌륭히 형상화하기 위해 창조적열정과 지혜를 합쳐왔다.

이런 축전무대에서 웰남국립가무극장예술단의 예술인들이 남성3중창으로 부른 전인민적송가 《총성의 노래》는 관람자들을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헌애는 그리움의 세계로 이끌었다.



가래가 모여살 통일의를 날을 그리며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무대에는 통일의를 지향하는 해외동포들의 마음을 뜨겁게 끓여줬다. 우리는 재미조선예술단의 공연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헌애의 넘넘,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고한 의지인 조국통일우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선 온 겨레의 거세한 승결이 막막치는 임기정도의 박력있는 피아노독주 《조선은 하나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그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통일에 대한 갈망이 그대로 안겨오는 피아노의 선율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

《조선에 오고 싶었습니다》

핀란드취주악단 연주자들

《정말 조선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단장 키비카르스 마르 쥬하니가 한말이었다. 거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키비카르스 마르 쥬하니는 아버지로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은 하향이라고 한다. 이취주악단의 연주가이기도 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예술인들을 이끌고 우리 나라에 여러번 다녀오기도 하였고 조선과 핀란드사이의 친

《조선에 오고 싶었습니다》

의 혁명가 《김일성주석의 노래》와 노래 《조국찬가》를 선정 한 이들은 자레로 편곡을 해가지고 취주악으로 잘 형상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뜨거운 마음이 어렸을 때의 취주악공연은 이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지만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를 통하여, 인류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예술을 통하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감정을 두터이 엮어 주었다.

우리 나라 노래들이 인생발명의 희망을 발견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취주악단을 이끌고 조선에 다녀오던 가보고싶어 한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다. 이런 아버지의 유언대로 취주악

심장으로 터진 조국의 노래

재 오스트랄리아 조선인 독창가 김미소

김미소동포는 명곡중의 명곡인 《조국찬가》를 이번 축전에서 부트러라 결심하고 노래현상에 정정을 다 바쳤다.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락하고 노래현상이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이 사랑하며 즐겨부르는 노래 《불타는 소원》을 더 준비하였다.

드디어 혁명의 막이 올랐다. 무대에서 화려한 조선적마저르 리를 입은 김미소동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절절한 노래소리에 눈물을 적시는 관람자들의 모습, 가수과 관중이 한담이 터져 버리는 《조국찬가》의 노래소리...

노래가 끝나자 장례를 뒤훑는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터졌다. 노래는 심장의 언어라는 말이 있다. 그가 노래 《불타는 소원》을 준비한 기간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다.

비록 짧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조국의 모습, 조선민족

위인칭송의 송가, 위대한 조국에 대한 찬가

김미소동포는 명곡중의 명곡인 《조국찬가》를 이번 축전에서 부트러라 결심하고 노래현상에 정정을 다 바쳤다. 그리고 위대한 대원수님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락하고 노래현상이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이 사랑하며 즐겨부르는 노래 《불타는 소원》을 더 준비하였다.

드디어 혁명의 막이 올랐다. 무대에서 화려한 조선적마저르 리를 입은 김미소동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의 절절한 노래소리에 눈물을 적시는 관람자들의 모습, 가수과 관중이 한담이 터져 버리는 《조국찬가》의 노래소리...

노래가 끝나자 장례를 뒤훑는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터졌다. 노래는 심장의 언어라는 말이 있다. 그가 노래 《불타는 소원》을 준비한 기간은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았다.

비록 짧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조국의 모습, 조선민족

태양절에 즈음하여

태양절에 즈음하여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주조주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7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 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총지와 김정숙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 김형준 외무성 부총, 관계부서 임관들이 초대 되었다.

주바공화국대사관 성원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헤르만 에르빈 페라스 알바레스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사회주의건설과 조건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상 102돛을 조선인민과 함께 뚜껑에 경축한다는 취지에서 연설하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생애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귀감으로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평양시부 성원들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조일민 반제민주전선 평양시부 대표와 지방성원들이 17일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배두산절세위인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이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머니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업적이 뜨겁게 이어졌다는 점과 조국의 단결성과 단결의 뉴대를 귀중히 여기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필성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의 길에서 우리 형제동포인민과 한전 호에 서있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건강을 축하하며, 전련적인 조인과 우리사회의 친선협조 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이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머니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업적이 뜨겁게 이어졌다는 점과 조국의 단결성과 단결의 뉴대를 귀중히 여기고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필성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의 길에서 우리 형제동포인민과 한전 호에 서있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건강을 축하하며, 전련적인 조인과 우리사회의 친선협조 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의 모임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 축전 참가자들의 친선환호모임이 17일 태권도전장에서 진행되었다.

축전조직위원회 성원들, 관계부서 임관들과 여러 나라 예술인, 해외동포예술인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인류의 태양으로 영생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안고 다채롭고 특색있는 공연종목들로 태양절을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알베르프이나이 구메르에스 전권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알베르프이나이 구메르에스 전권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알베르프이나이 구메르에스 전권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알베르프이나이 구메르에스 전권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알베르프이나이 구메르에스 전권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알베르프이나이 구메르에스 전권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알베르프이나이 구메르에스 전권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

우리 나라 사진, 도서, 미술전람회

로씨야, 슬로베니아에서 개막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진, 도서 및 미술전람회가 로씨야 아르침시와 슬로베니아 류블랴나에서 개막되었다.

전람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분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들, 우리 인민의 재능이 깃는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아르침시행정부 시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를 해방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



경쟁열풍으로 세차게 들끓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전투장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최대의 실리를 얻는 작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일관을 뚝이 크게 벌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전투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올해에 풀판조성을 끝내고 많은 살림집과 집짐승우리를 건설하기 위해 려단일꾼들이 중시한 것은 로력조직문제였다. 작업조건이 불리하고 공사량도 방배하였던 지난해의 개간전투는 풀판조성을 총집중하여 적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의 풀판조성과 살림집, 집짐승우리건설은 많은 작업공정들을 수행해야 하면서도 로력이 종전보다 몇배나 더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전투 과제였다. 그래서 올해의 전투 목표에 적지않게 앞선다. 그러나 올해의 풀판조성과 살림집, 집짐승우리건설은 많은 작업공정들을 수행해야 하면서도 로력이 종전보다 몇배나 더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전투 과제였다. 그래서 올해의 전투 목표에 적지않게 앞선다. 그러나 올해의 풀판조성과 살림집, 집짐승우리건설은 많은 작업공정들을 수행해야 하면서도 로력이 종전보다 몇배나 더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전투 과제였다. 그래서 올해의 전투 목표에 적지않게 앞선다.

라선시려단 일꾼들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려단장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 시기 시안의 대상건설자들에게서 소문을 낸 돌격대원들은 시급대대, 농사일에 파악이 있고 책임성 높은 돌격대원들로 조직하고, 선봉지구대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역량 편성을 새롭게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일꾼들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세 포 군 사 단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슨 일에서나 경멸이 없어야 한다. 남보다 앞서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분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승을 위한 맹렬한 추적전

세 포 군 사 단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슨 일에서나 경멸이 없어야 한다. 남보다 앞서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분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2월 17일과 화요일, 기술자들간의 편견 없이 포진별도양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휴보산비료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룡양산지구, 무역성돌격대를 비롯한 리복지구의 해당 단위에서는 승배비가 큰 휴보산비료생산을 다그치고있다.

65만여그루의 칙모를 생산한 비결

올해의 풀판조성과 살림집, 집짐승우리건설은 많은 작업공정들을 수행해야 하면서도 로력이 종전보다 몇배나 더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전투 과제였다. 그래서 올해의 전투 목표에 적지않게 앞선다. 그러나 올해의 풀판조성과 살림집, 집짐승우리건설은 많은 작업공정들을 수행해야 하면서도 로력이 종전보다 몇배나 더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전투 과제였다. 그래서 올해의 전투 목표에 적지않게 앞선다.

라선시려단 일꾼들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려단장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 시기 시안의 대상건설자들에게서 소문을 낸 돌격대원들은 시급대대, 농사일에 파악이 있고 책임성 높은 돌격대원들로 조직하고, 선봉지구대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역량 편성을 새롭게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일꾼들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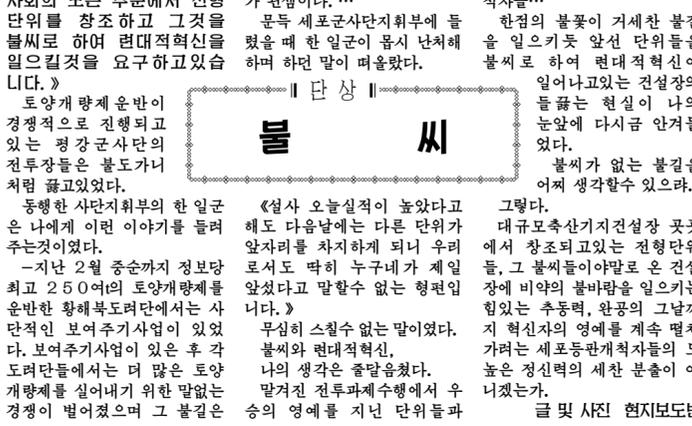
땅다루기를 기계화한 자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맹손으로 뜨락뜨락와 전기기관차를 만들어버린 그루지, 우린의 힘과 기술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승을 위한 맹렬한 추적전

세 포 군 사 단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슨 일에서나 경멸이 없어야 한다. 남보다 앞서겠다는 열의를 가지고 분발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발전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에서 2월 17일과 화요일, 기술자들간의 편견 없이 포진별도양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휴보산비료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룡양산지구, 무역성돌격대를 비롯한 리복지구의 해당 단위에서는 승배비가 큰 휴보산비료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한 전 호 에 선 심 정 으 로

드높은 함성이 밤공기를 절거르며 메아리쳤다. 《하루하루, 하나둘, 《영차, 영차》...》

라선시려단 일꾼들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려단장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 시기 시안의 대상건설자들에게서 소문을 낸 돌격대원들은 시급대대, 농사일에 파악이 있고 책임성 높은 돌격대원들로 조직하고, 선봉지구대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역량 편성을 새롭게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일꾼들모두가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보답과 의리로 삶을 빛내이며

박천군 읍 171 인민반은 가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한 가정이었다. 할머니를 돌보아주는 마음으로...

박천군 읍 171 인민반 김정성동무는 보답이 따라야 하고 그 대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밤잠을 잊어버려서 일하였다. 그는 보답이 따라야 하고 그 대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그는 밤잠을 잊어버려서 일하였다.

